

에티오피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4

I. 일반개황	2
II. 경제동향	3
III. 정치·사회동향	10
IV. 국제신인도	14
V. 종합의견	1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1,222천 km ²	G D P	296억 달러(2009년)
인구	82.71백만 명(2009년)	1 인 당 G D P	358 달러(2009년)
정치체제	연방제(내각책임제)	통화단위	Birr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추구	환율(달러당)	11.78(2009년 평균)

- 아프리카 대륙 동북단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지부티와 소말리아(동), 수단(서), 케냐(남), 에리트레아(북)와 접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 내 나이지리아, 이집트에 이어 세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임.
- 기원전 1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지닌 에티오피아는 1936년까지 독립을 유지하다 1936년 이탈리아에 의해 주권을 상실했으나 1941년 전쟁을 통해 이탈리아 군부를 축출함. 그 후 좌익 독재 정권 하에서 장기간의 내전을 겪으며 높은 인구밀도, 가뭄 및 사회주의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함.
- 에티오피아는 1987년 대통령제를 도입하였으나 내각이 정치 실권과 국군통수권을 지니고 있는 의원내각제 국가임. 1995년 연방제를 도입하였으며 9개주와 2개의 특별시(수도인 아디스아바바와 상업중심지인 디레다와)로 구성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e
경제성장률	11.8	10.9	11.1	11.6	8.7
재정수지/GDP	-4.4	-3.8	-3.7	-2.7	-2.3
소비자물가상승률	11.6	12.3	17.2	44.4	8.5

자료: IMF, EIU

□ 2008/09년 경제성장 둔화

- 풍부한 강수량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 증가와 이에 따른 농산품 가공업의 호조, 2005년 선거 후폭풍으로 인한 사회불안 해소후 다시 늘어는 원조국의 공여를 기반으로 2007/08년(회계연도: 7.8~7.7) 11%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달성함.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기침체로 수출 증가가 둔화되고, 해외거주자의 국내송금이 크게 감소하며, 2008/09년 경제성장률은 8.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9년 하반기 동추세가 지속되고, 불규칙적인 강수량으로 농작물 작황이 다소 악화됨에 따라 2009/10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만성적 재정수지 적자 지속, GDP 대비 적자비중 감소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2007/08년 2.7%를 기록하였으며, 수년간 지속된 재정수지 적자 및 고도성장으로 정부가 긴축재정정책을 펼친 결과 2008/09년에는 소폭 감소한 2.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아프리카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조세징수시스템을 가진 에티오피아는 원조국의 공여를 배제할 경우 현재의 공식적인 재정수지 적자 수준인 2~3%대 보다 훨씬 높은 6~7%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09/10년에는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로 정부가 긴축재정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 압력 완화

- 가품, 소비자물가 구성의 57%를 차지하는 식료품가격의 급등 및 유가 상승 등으로 2007/08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물가측정 이래 최고 수준인 44.4%를 기록하였음.
- 2008/09년은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식료품 가격의 하락, 원유가격의 하향 안정,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 시행 등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8.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09/10년은 비르(Birr)화 가치의 하락*에 따른 수입 가격의 인상,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대내외 수요의 상승, 평균이하의 농작물 작황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8/09년 미달러당 평균 비르화 가치는 전년동기 대비 23% 감소한 11.78을 기록하였으며, 2009/10년은 전년동기 대비 15% 감소한 13.56을 기록할 전망

2. 경제구조 · 정책

□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 농업부문이 총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인구의 85% 가량이 농업에 종사할 정도로 에티오피아는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특히, 에티오피아의 주요 수출품인 커피는 총수출의 35~40%를 차지하고 있음.

-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로 인해 연간 강수량, 농산물의 국제가격 시세 등 외부적인 요인들이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08/09년 농업부문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6.4%를 기록, 최근 6년중 가장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열악한 농업환경

- 한반도의 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고산지대에서만 농산물 재배가 가능하고 그마저도 관개시설 부족으로 인해 전적으로 강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고질적인 가뭄,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하천 범람도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저해하고 있음.
- 또한 인구과밀로 인해 최근 십여 년간 농업지역인 고산지대의 지질이 악화되고 토양침식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수도인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인근의 산림자원 또한 건축자재 및 연료 등으로 과도하게 활용되며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임.

□ 전기공급의 불확실성

- 이탈리아 제조사 살리니(Salini)사에 의해 건설, 2010년 1월 가동을 개시한 동국 최대 규모(420MW)의 Gilgel-Gibe II 발전소의 가동결함으로 에티오피아 국영전력회사인 Ethiopian Electric Power Corporation은 2월부터 주요 산업에 대한 전기공급을 50% 이상 감축하였음. 이러한 가동결함을 수정하여 전력공급을 정상화하는데 적어도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09년말 전력생산을 개시한 300MW 규모의 에티오피아 북부에 위치한 테케제담(Tekeze Dam)도 저수량의 부족, 예하 발전소인 코카담(Koka Dam)에서의 화재 발생 등으로 시작부터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에티오피아는 열악한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잦은 사고와 오류, 운영미숙 등으로 인해 국가 산업전반에 대한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향후 이러한 전력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능력이 향상되어 최근 확대 건설되고 있는 발전소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에티오피아는 주변국가에 대한 전력공급을 통해 대외수지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커피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세

- 에티오피아의 총수출액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커피는 2001/02년 수출금액이 1.6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2007/08년 수출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23.6% 증가한 5.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최근에는 단순한 원두수출에서 나아가 커피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부처 개편을 단행하는 등 커피 관련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유럽 지역 대상 원예업 성장중

- 고산지대의 온화한 기후조건, 원예업 대상 5년의 면세기간 및 유리한 대지임차 조건을 제시하는 정부의 지원책 등을 기반으로 최근 에티오피아의 원예업은 급성장하고 있음. 원예업의 주요 작물인 꽃의 경우, 2007/08년 1.1억 달러의 수출금액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75.8% 증가하였음.
- 2006년 개장된 Bole 공항의 카고 터미널은 유럽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한층 높여 에티오피아의 원예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일조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유럽 지역 화훼업자의 적극적인 투자 등에 힘입어 원예산업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관광업 발전 가능성

- 에티오피아의 관광산업은 고대 악숨(Aksum) 제국 및 기독교 관련 유적지, 천혜의 자연환경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또한 African Union과 UN ECA의 본부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가 위치해 있고 아프리카 동북부 허브공항의 위치를 점하고 있어 컨퍼런스 부문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음.
- 아디스아바바 지역내 세계적 호텔체인 도입 등 숙박시설에 대한 확충을 통해 동국 정부는 2010년 연간 관광객 50만명 유치, 2020년까지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10대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석유 탐사 작업 진행 중

- 역내 주요 석유 생산국인 수단, 유전지대가 에티오피아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에티오피아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석유탐사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페트로나스(Petronas)는 2005년부터 석유탐사권을 획득, 석유탐사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영국 및 미국계 업체가 탐사작업을 진행 중임.

□ 2009년 8월, IMF 2.4억 달러 규모의 외부충격기금(ESF) 지원

-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려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초 식품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타격에 이어 2009년초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는 등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IMF는 2009년 8월 에티오피아에 대한 1.5억 SDR(약 2.4억 달러) 규모의 외부충격기금(ESF)을 승인하였음.

* 외부충격기금(Exogenous Shocks Facility: ESF): 외부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충격으로 저소득국의 국제수지 균형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수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IMF가 지원하는 양허적 성격의 기금

- 재정 및 통화정책 등에 대한 IMF의 정책적인 권고 및 구조적인 조정과 함께 외부충격기금(ESF)을 활용한 긴급 금융지원은 다른 원조자금과 함께 대외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등 경제상황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장기적 식량 자급계획 **Productive Safety Net Programme(PNSP)** 진행중

- 2002/03년 기간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극심한 식량부족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에티오피아의 식량자급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에티오피아의 대외 식량원조 의존율을 낮추기 위한 Productive Safety Net Programme(PNSP)이 EU 및 World Bank 등의 공조 하에 2005년부터 시행 중에 있음.

- 동 프로그램은 기존의 식량원조 위주에서 벗어나 식량과 공적자금의 동시 지원 및 사업시행을 통한 식량자급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있음. 사업규모는 연간 2억 달러로 5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공공사업의 시행을 통한 노동자앞 임금지급, 지역시장 활성화, 역내 농작물거래 활성화를 위한 도로 인프라 개선, 가뭄 시 긴급 구호펀드 설치, 공공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인 앞 소액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함. 2010년에는 약 8백만명의 에티오피아 국민이 PNSP를 통해 생활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IMF 방식의 장기 경제개발정책(PASDEP) 추진중

- 인민혁명민주노선당(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EPRDF)은 1991년 집권 후 IMF와 World Bank의 경제개발정책을 모델로 개방·실용위주의 경제개혁 정책을 추구해옴. 에리트레아(Eritrea)와의 전쟁으로 인해 주요 원조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으나 전쟁 종결 후 빈곤해소를 위한 개혁모범국가로 인식되면서 원조 규모가 점증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는 경제개발정책으로 2001/02년부터 2005/06년까지 추진된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Programme(SDPRP)에 이어 2006/07년부터 현재까지 Plan for Accelerated and Sustained Development to End Poverty(PASDEP) 정책을 수행중에 있음. 2010/11년까지 지속될 PASDEP는 농업을 통한 산업화를 모토로 거시경제정책, 산업구조 개편, 인프라 확충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실행계획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총 사업규모 252억 달러중 약 30~40%는 원조자금에 의해 충당되고 있음. 현재 에티오피아 정부는 PASDEP의 뒤를 이을 국가개발정책을 마련중임.
- 에티오피아의 주요 원조 기관인 세계은행도 3년 단위의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를 통해 동국의 PASDEP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의 CAS는 2011년 중반에 마무리 될 예정임. CAS는 경제성장 도모,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개선, 안정적인 식량 확보 및 지배구조 개선의 4개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e
경 상 수 지	-1,567.8	-1,785.9	-828.0	-1,805.7	-1,953.1
경 상 수 지 / GDP	-14.2	-13.4	-4.7	-6.1	-6.6
상 품 수 지	-2,783.5	-3,080.9	-3,870.8	-5,651.6	-5,270.5
수 출	917.4	1,024.7	1,284.9	1,554.7	1,621.7
수 입	3,700.9	4,105.6	5,155.7	7,206.3	6,891.7
외 환 보 유 액	1,032.1	856.3	1,278.1	859.0	1,644.1
총 외 채 잔 액	6,260	2,281	2,457	3,306	5,175
총 외 채 잔 액 / GDP	56.5	17.1	13.9	12.2	17.5
D . S . R .	4.8	7.3	5.2	2.6	2.8

자료: IMF, EIU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기조

- 에티오피아는 원조지원, 해외근로자의 송금유입 확대 등으로 매년 30~40억 달러 규모의 경상이전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기계류, 원유 등의 수입증가로 50억 달러 규모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세계경기침체로 해외거주자의 송금이 크게 감소, 경상이전 수지 흑자폭이 전년동기 대비 8.5% 감소하며 2007/08년 6.1%를 기록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08/09년 6.6%로 소폭 확대되었음.
- 2009/10년에는 세계경기회복으로 교역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제상품가격의 상승, 인프라건설을 위한 자본재 수입 등의 증가로 수입증가 규모가 수출증가 규모를 상회하며 상품수지 적자폭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해외송금유입 및 원조증가 등으로 인한 경

상이전수지 흑자폭의 확대, 관광산업의 회복으로 인한 서비스수지의 개선으로 2009/10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인 6.7%를 기록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 증가세

- 2009년 8월, IMF의 외부충격기금(Exogenous Shocks Facility: ESF) 지원 및 원조공여 등의 증가로 외환보유액은 증가추세에 있음.
- 에티오피아의 2009년 10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16.4억 달러로 2008년말 기준 8.5억 달러 대비 93% 증가하였으며,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도 2008년말 1.1개월에서 2.04개월 수준으로 개선되었음.

□ 2004년 HIPC Completion Point 달성 이후 외채상황은 양호한 편

- 2004년 HIPC Completion Point 달성으로 13억불의 외채가 감소한 이래 2007년부터 D.S.R.이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GDP 대비 총외채도 10%대 수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도 10% 미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외채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사회안정

□ 인민혁명민주노선당(EPRDF)의 장기집권

- 군부를 중심으로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Tigray People's Liberation Front: TPLF), 암하라민족민주운동(Amharar National Democratic Movement: ANDM) 등이 연합하여 결성된 인민혁명민주노선당(EPRDF)은 1991년 멩기스투(Mengistu) 당시 대통령을 축출한 이래 장기집권하고 있음.
- 인민혁명민주노선당은 외국 원조의 지속적인 도입에 성공하고 빈곤퇴치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음. 2005년 5월 인민회의 의원선거에서도 의석수는 감소하였으나 집권여당

인 인민혁명민주노선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며 1995년부터 집권을 지속한 멜레스 제나위(Meles Zenawi) 총리가 재집권하였음.

□ 2010년 5월 총선에서도 인민혁명민주노선당의 압승 전망

-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2010년 5월에 예정된 총선에서도 현재 집권당인 인민혁명민주노선당의 큰 승리가 점쳐지는 등 당분간 동국의 정치적인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 다만, 이번 선거를 통해 야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크게 증가하거나, 부정선거에 대한 시비가 불거져 2005년 총선 당시의 혼란처럼 야당 지지자들이 부정선거결과에 격렬히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치적인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총 의석수 547석 중 현재 150석에 불과한 야당의 결집세력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50개 이상의 당파들이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이후 굳건한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는 인민혁명민주노선당의 안정적인 정치상황,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욱 적어진 개선된 선거시스템 등을 감안시 2005년 수준의 정치적인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금번 선거에서 당별 입후보 현황은 인혁명민주노선당이 460명, 야당중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전에티오피아통합당(All Ethiopia Unity Party) 295명, 에티오피아민주당(Ethiopian Democratic Party) 231명, 통합민주연합당(Coalition for Unity and Democracy)이 143명이며, 과격파로 분류되는 민주대화포럼당(Forum for Democratic Dialogue)에서는 393명의 후보자가 총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 정치·경제적 사회불안요소 상존

- 70여개 이상의 종족 및 종교간 마찰로 인해 정치·사회적 불안이 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세계 최저 수준의 생활여건과 경제 환경 등으로 사회 안정도가 매우 낮음. 에티오피아는 2009년 10월에 발표된 UN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보건 위생환경 악화, 빈곤, 기초 교육 부재 등으로 177개국 중 171위를 차지하였으며 절대빈곤층이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를 상회하고 있음.

□ 2005년 대선 후 후폭풍

- 2005년 총선 후 통합민주연합, 에티오피아민주연합전선 등 야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 선거 후 발생한 시위에서 보안군이 시위대에 발포하여 200여 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수천 명을 연행하였음. 또한 주요 야당 인사를 폭력시위를 조장했다는 명목 하에 반역죄로 기소하여 2007년 평결에서 종신형을 선고하는 등 정치적 혼란이 한 동안 지속되었음. 이에 따라 부정선거 의혹 및 과잉진압으로 민주 개혁자로 알려진 제나위(Zenawi) 총리의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음.

2. 국제관계

□ 에리트레아와의 국경분쟁 교착상태

- 1993년 에티오피아에서 독립한 에리트레아와의 국경분쟁이 1998년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쟁으로 비화된 후 2000년 5월 에티오피아가 승리하면서 표면상으로는 종전됨. 종전 후 UN 평화유지군(UN Mission in Ethiopia and Eritrea : UNMEE)이 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에리트레아 영토 안쪽 25Km에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에티오피아군의 철군절차를 진행하였음.
- 2000년 평화협정 체결 당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 중립국경 위원회(Eritrea-Ethiopia Boundary Commission: EEBC)를 설립하였으며 양국은 국경제정에 관한 EEBC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사전 합의를 하였음. 2003년 EEBC는 기존 에티오피아에 속해 있던 Badme지역을 에리트레아령으로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에티오피아는 불만을 표출하며 EEBC의 국경문제에 대한 결론을 부정함. 결국 2007년 EEBC는 국경문제를 양국 간의 합의사항으로 남겨둔 채 활동을 마무리하였음.
- 양국간 합의라는 숙제로 남겨진 국경문제는 외교적 합의를 이루려는 다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채 아직까지 교착상태에 머무르고 있음. 다만, 완충지대에 머물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던 UN 평화유지군도 철수한 상황이라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임.

□ 수출입항만으로서 지부티(Djibouti) 의존

- 육지로 둘러싸인 에티오피아는 지난 1998~2000년 에리트레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기존 에리트레아 아사브(Assab)항으로의 접근이 차단되자 지부티를 통해 수출입 물류를 운송하였음. 현재 양국 간 우호관계 속에 에티오피아 무역의 98%가 지부티의 항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2009년 1월, 소말리아 철군 마무리

- 2006년 12월 에티오피아는 소말리아 과도정부(Transitional Federal Government: TFG)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말리아 이슬람군벌(the Union of Islamic Courts : UIC)를 공격함. '아프리카의 빨'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에티오피아는 당시 UIC 소탕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TFG와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Mogadishu) 탈환에 성공하였음.
- TFG와 온건 이슬람파들과의 화해로 2009년 1월 에티오피아 주둔군은 철군을 마무리하였으나, 소말리아와 국경을 접한 관계로 에티오피아 정부는 소말리아내 정국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TFG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지속하고 있음.

□ 기타 주변국과의 관계

- 최근 에티오피아는 에리트레아를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변국 수단과 예멘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에티오피아를 흐르는 나일강 지류인 블루나일에 관한 사용을 둘러싸고 이집트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미국과는 군사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에리트레아와의 국경분쟁으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9·11 테러 후 소말리아 이슬람 무장단체를 소탕하기 위한 미군의 전초기지를 에티오피아가 제공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짐. 특히 지난 EEBC의 판결 불복중에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되었을 때에도 에티오피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의 비호 하에 에티오피아 군 및 미군 간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등 군사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기 관	종 전 등 급	현 행 등 급
OECD	7등급('08.10)	7등급('09.10)
ICRG	118/140('09.1)	124/140('10.1)
Euromoney	127/186('09.9)	145/186('10.3)
I.I.	150/175('09.3)	154/178('09.9)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 EXIM : Short-Term Insurance Pilot Program(STIPP) 경우 인수가능
- ECGD :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제한적 중기인수
-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외채상환태도

HIPC Initiative를 통한 채무탕감으로 외채상환부담은 낮은 편

- 2001년 HIPC Initiative 프로그램을 시작한 에티오피아는 2004년 4월 Completion Point에 도달하며 13억 달러의 채무를 탕감 받음.

OECD 회원국 ECA,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한 양호한 외채상환 태도

- OECD 회원국 ECA의 대 에티오피아 지원현황(OECD, 2009년 6월말 기준)
 - * 단기: 총지원잔액 4,070만 달러(연체금액 없음)
 - * 중장기: 총지원잔액 4.9억 달러(연체금액 없음)
- IMF나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현황은 없음.

V. 종합의견

- 에티오피아는 농산품 가공업의 호조, 증가하는 원조국의 공여를 기반으로 2007/08년 11%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음. 그러나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기침체로 FDI, 수출 및 해외거주자 송금이 감소하며 경제성장률이 소폭 감소한 8.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기계류, 원유 등의 수입증가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8/09년에는 세계경기침체로 해외거주자 송금이 크게 감소한 결과, 경상이전수지 흑자폭이 감소하며 경상수지 적자가 소폭 확대됨. 열악한 조세징수시스템으로 재정수지도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국제식품가격의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7/08년 44.4%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 들어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정책을 통해 2008/09년에는 8.5%로 안정되었음. 2009년 8월 IMF의 외부충격기금 지원으로 감소하던 외환보유액은 증가세로 전화되었으며, 2005년 Completion Point 도 달에 따른 외채탕감이후 양호한 수준의 외채상환능력을 유지중임.
- 정치적으로, 에티오피아는 총리 Meles의 통치 하에 1991년 이래 안정적인 통치기반을 확립하고 있으며, 2010년 5월 예정된 총선에서도 여당의 승리가 예상되는 등 당분간 정치적인 안정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009년 1월 평화유지 명목으로 소말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에티오피아군은 철군을 완료하였으나, 에리트레아와의 국경분쟁은 다소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임.

조사역 반형섭(☎02-3779-6665)

E-mail : hsbhan@koreaexim.go.kr